

# 전통축제의 진수 다시 한번

## 제89회 춘향제 성료

대한민국 대표전통축제인 제89회 춘향제가 지난 8일 춘향신발대회와 9일 오전 거행된 춘향제향을 비롯해 전통축제의 진수를 다시 한번 선보이며 12일 저녁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봄의 향기 춘향(春香)이 따뜻한 햇살을 초대한 듯이 5일 동안 화창한 날씨 아래 7개의 크고 작은 무대에서 춘향제의 상징 프로그램인 춘향신발대회와 개막공연 행사를 했다.

이 축제에서 80여편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관광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몽룡놀이터는 국내 최정상급 북화술사가

펼치는 북화술쇼, 마술풍선쇼, 창작 인형극, 길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져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전국에서 참여해 진행된 춘향길놀이, 방자춤, 달빛춤, 버스킹 공연 등 퓨전공연 등은 축제현장의 흥을 북돋우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올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주인공인 안전한 축제 조성에 집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공연부문에서는 형식적인 기념식 행사를 과감히 없애고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개막공연을 중심으로 춘향제의 서막을 알리며 큰 호응을 받았다.

관광객 편의제공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수유실, 간이화장실, 휠체어, 미야방 지팔찌 무료배부, 안전진단요원 배치, 다양한 장소의 쉼터를 제공해 춘향제의 수준을 높였다.

또한 처음으로 운행한 무료셔틀순환버스와 주생비행장 및 춘향골체육공원에 마련된 임시주차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장을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춘향제전위 관계자는 "새로운 변화로 남원을 들쭉들쭉하게 했다. '남원의 아름다운 꿈'의 춘향제는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퓨전과 가족공연을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거듭났다"며, 새로운 축제를 기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공사 막바지

순창군이 조성중인 '행복누리센터'가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행복누리센터는 군이 2018년부터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구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중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쉼나무 아동 돌봄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복합 커뮤니티 센터다.

읍 소재지권과 인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리적 장점도 가지고 있다.

센터내 입주할 시설들중 눈에 띄는 것이 지상 1층에 입주할 해피니스 PCN센터와 쉼나무 아동 돌봄센터다.

쉼나무 아동 돌봄센터는 방과 후 숙제지도, 부모교육, 놀이교실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육아 및 하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들 둔 부모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또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맡길 수 있는 일시 돌봄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어서, 워킹 맘들에게 더욱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같은 층에 위치할 해피니스 PCN센터는 Pregnancy(임신)·Childbirth(출산)·Nurture(양육)의 토탈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모센터와 교육실,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조성돼

산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60세이상 추정 치매환자수가 1,192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행복누리센터로 이주시켜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을 충원해 치매 환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현재 관내 순화교육중인 영양 및 위생교육이 확대 운영되며, 요리실습체험도 병행된다.

군 최종국 재무과장은 "순창을 대표할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조속히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오늘까지 신규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임실군이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영동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신규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신규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직업 윤리의식 및 공직가치관을 정립하여

임실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첫째날은 혁신공무원의 자세 및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조직 융화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특히, 공무원 스스로 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영동와인터널 등 국내 산업관광의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끝으로 교육을 마쳤다.

심민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원으로서 임실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능동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직에 임해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보고회

남원시는 13일 김동규 부시장 주재로 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해 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는 세부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실적 향상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동규 부시장은 "최근 2년간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패거는 평가 대비를 위해 매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부진지표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자체교육, 워크숍 등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에서 도서기증행사가 연이어 열려 화제다.

## 순창군, 지역 사회단체에 도서 500권 기증

순창군에 도서기증행사가 연이어 열려 화제다. 군은 최근 황송주 군수와 신정아 순창군의회 부의장, 장교철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에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식은 국문문화진흥원이 순창군립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를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의 회원과 조합원, 돌봄교실 아동들이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순창군립도서관이 주선에 나서면서 성사됐다.

도서를 기증받은 장교철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 이사장은 "순창과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며, 삶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우리 조합이 절실히 목말라하는 인문학적 독서 기반을 확충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황송주 순창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순창군은 문화가 숨 쉬는 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군립도서관을 비롯, 동계, 구림, 쌍치, 복흥면에 작은도서관이 확충되면서 풀뿌리 독서진흥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순창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힘은 지역민들의 높은 인문지성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에 도서기증행사가 연이어 열려 화제다. 군은 최근 황송주 군수와 신정아 순창군의회 부의장, 장교철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에 도서 500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식은 국문문화진흥원이 순창군립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를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의 회원과 조합원, 돌봄교실 아동들이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순창군립도서관이 주선에 나서면서 성사됐다.

도서를 기증받은 장교철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 이사장은 "순창과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며, 삶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우리 조합이 절실히 목말라하는 인문학적 독서 기반을 확충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황송주 순창군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순창군은 문화가 숨 쉬는 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군립도서관을 비롯, 동계, 구림, 쌍치, 복흥면에 작은도서관이 확충되면서 풀뿌리 독서진흥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순창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힘은 지역민들의 높은 인문지성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안전 춘향제' ... 남원경찰, 거리 경비·홍보

남원경찰서는 제89회 춘향제 기간 협력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행사장 주변 혼잡관리, 주요요차로 교통관리 및 경찰 홍보부스 운영을 통하여 안전한 춘향제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춘향제에는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행사기간 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춘향교 37와 승사교 47에 이동파출소, 교통경찰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보행자 대상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혼잡지역 소통을 원활히 했다.

특히, 올해는 잠운정을 비롯한 유명 가수들이 출연한 '남원시민화합한마당'과 '춘향 선발대회' 등으로 혼잡한 거리 경비를 안전하게 마무리 하

였으며, 각종 거리행사에서는 구간별 순간통제와 교통 혼잡지역 차량통제 및 우회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 춘향제에서는 "교통안전 Promise 101" 프로젝트와 포토존 설치로 인해 시민들과 교통안전에 대해 약속하고, 즉석사진으로 약속인증관에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홍보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경찰장복, 수갑, 방검장갑, 삼단봉 등 경찰관련 물품을 착용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기마대를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려 눈길을 끌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임실군 신덕면민의날

### 화합한마당 큰잔치 성료

임실군 신덕면은 최근 신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7회 신덕면민의 날 행사'가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군의회의장,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면민의 날을 축하했다.

신덕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종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공익장에 김용대 씨, 효열상에 임귀남 씨 등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덕면 농약단의 식전행사 시작으로 제기차기, 투호놀이, 고리걸기, 공굴리기 등 민속경기와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이루어졌으며, 행운권추첨, 필봉농악단, 가수 및 마을별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했다.

김종섭 회장은 "지역면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함께 즐기고 화합하며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돼 풍요롭고 더불어 살기 좋은 신덕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 여름철 재난 대비 산악구조훈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지난 10일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산악지형과 계곡에서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조 전문기관 간의 숙련된 노하우와 팀워크를 배양하고 구조 기술 노하우 교류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육묘정 인근 계곡에서 계곡 도하훈련 및 조난환자 안전운반 등 산악지형에서 필요한 구조훈련과 함께 안전산행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북사무소 심용식 재난안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산악구조대와 구조 전문기관인 119구조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